

---

# 문명의 비전에서 야망의 비전으로

—영어와 한국 소설—

김 철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구) 이 익 옥년아

어- 실체하였구

남의 집 처녀더러 쏘 히라 헛갓구나

우리가 입으로는 조선말은 헛더러도 마음에는 서양문명한 풍속이 저것스니 우리는 혼인을 헛여도 서양사름과 갖치 부모의 명령을 좇칠 거시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부될 마음이 잇스면 서로 직접헛야 말흐는 거시 오른일이다 그러니 우선 말부터 영어로 슈작헛즈 조선말로 헛면 입에 익은 말로 외짜 히라헛기 불안헛다

헛면서 구씨가 영어로 말을 헛는디 구씨의 학문은 옥년이보다 더단이 높푸는 영어는 옥년이가 구씨의 선성 노릇이라도 할만한 터이라

그러나 구씨는 셋투른 영어로 수작을 헛는디 옥년이는 조선말로 둔정히 더답헛더라

김관일은 쫓의 혼인 언론을 헛다가 구씨가 서양풍속으로 즉첩 언론헛즈흐는 서술에 옥년의 혼인 언약에 좌지우지할 권리가 업시 감만이 안젓더라

“평양 일경이 떠나가는 듯한” “일청 전쟁의 총소리”로 막을 여는 이인 직(李人植)의 신소설 『혈(血)의 류(淚)』(1906)에서의 이 장면만큼 20세기

한국 사회의 미래를 그대로 예시하고 있는 것은 없는 듯하다. 일본인 군의(軍醫)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간 옥련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청년 ‘구완서’의 도움을 받아 그와 함께 “횡빈(橫濱: 요코하마)”에서 “화살같이 달아나는 화륜선”을 타고 미국 “상항(桑港: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다섯 해 만에 “화성돈(華盛頓: 워싱턴)”의 “고등소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먼저 미국에 와 있던 아버지 ‘김관일’과 감격에 찬 해후를 한다. 위의 장면은 옥련이 아버지와 함께 “미국 화성돈 어떤 호텔”로 구완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옥련과의 결혼을 원하는 김관일 앞에서 “서양 풍속에 젖은” 구완서는 “우리가 부부될 마음이 있으면 서로 직접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선 말부터 영어로 수작하자”는 것이 혼인 제의를 받은 구완서의 생각이다. 영어를 잘 못하는 구완서는 “서투른 영어로 수작을” 하고 옥련이는 “조선말로 단정히 대답”을 한다. 아버지 김관일은 딸의 혼인 말을 꺼냈다가 “서양 풍속으로 하자는 서술에”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 이들의 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더 이상의 서술이 없으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혼인은 아무 문제없이 성사되었다. 한국 신문학의 첫 장을 여는 이 소설에서 이렇듯 쉴 새 없이 등장하는 ‘영어’, ‘미국’ 등의 표지들은 이미 심상치 않은 어떤 징후들을 드러내고 있다.

딸의 혼인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김관일로 하여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영어’의 위력이다. 그것은 김관일이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는 구완서나 옥련보다 훨씬 일찍 미국에 와서 거주하고 있다.) 영어로 표상되는 새로운 질서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어로 말을 한다는 것은 혼인을 하는 데에 “부모의 명을 좇는” 조선 풍습을 버리고, “서로 직접 말하는” “서양 문명”을 따르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영어로 수작”하는 것이야말로 “문명한 세상에 나서 나라에 유익하고 사회에 명예 있는 큰 사업을 하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인 것이다.

문명개화의 전도사였던 『독립신문』이 순 한글판과 영문판을 동시에 발행했던 사실이 단적으로 증명하듯이, 영어는 봉건 조선의 어둠을 물리치

는 문명의 빛으로 인식되었다. (사람들은 이완용이 일본어에 능통하였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교육 기관인 ‘육영공원’에서 미국인 교수들에게 영어를 배웠고 이후 미국 주재 공사로 근무하였다. 그는 일본어를 몰랐고 조선 총독부의 관리들은 그의 영어에 주눅이 들기도 했다는 일화가 있다.) ‘영어=미국=문명=세계’ 라는 이 표상 구조는 19세기 말 이래 한국 사회에 하나의 강박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 소설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가감 없이 반영했다.

『혈의 루』의 작가는 ‘화륜선’을 타고 미국에 첫발을 디딘 구완서와 옥련의 도착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서생과 옥련이가 룩디에너서 갈브를 아지 못흐야 공논이 부순하다

(서) 이이 옥련아 네가 영어 할줄 아느냐

조금도 모르느냐

한마디도.....

그러면 참 짝한 일이로구는 어디가 어딤인지 무리볼수가 업고나

사오층되는 늙흔 집은 구름속 흥닐밋히 단듯한디 물썰툏흐는 사름들이 도야들고 도야는 모양은 주먹집 갓흔곳도 만히보히는 언어를 통치 못흐는고로 어린 서싱들이 엇지흐면 조홀지 아지 못흐야

다른 무엇보다도 ‘언어를 통치 못하는’ 어려움이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구완서와 옥련의 귀에 들리는 미국인들의 말은 “바바바바· 흥는 소리갓고 말소리갓지 아니하다.” 소설은 영어를 몰라서 길에서 우왕좌왕하는 구완서와 옥련을 묘사한 뒤, 마침 그 자리를 지나던 청국의 개화지사 강유위(康有爲)의 도움으로 그들이 워싱턴의 학교에 들어가서 다섯 해 만에 옥련이가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되었다는 서술로 바로 이동한다. 요컨대,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영어로 수작”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이 문명개화의 실제임을 『혈의 루』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영어를 몰랐던 이인직이 다만 “바바바바 하는 소리”로밖에는 그럴 수 없었던 ‘영어’는 이광수(李光洙)의 소설에 오면 비로소 그 “수작”의 구체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무정(無情)』(1917)의 주인공 이형식의 직업은 ‘경성학교’의 ‘영어 교사’이다. 미국 유학을 한 바 있는 ‘김 장로’의

집에 이형식이 ‘영어 개인 교수’를 하러 가는 장면으로부터 소설은 시작된다. 김 장로의 딸인 ‘정신 여학교’의 졸업생 ‘선형’이 미국 유학을 위해 이형식에게 영어를 배우는 첫 장면을 보자.

“그러면 에이, 비, 시, 디부터 시작하리까요?”

“네” 하고 둘이 함께 대답한다.

“그러면, 그 공책과 연필을 주십시오. 제가 에이, 비, 시, 디를 써 드릴 것이니.”

선형이가 두 손으로 공책에다 연필을 받쳐 형식을 준다. 형식은 공책을 펴 놓고 연필 끝을 조사한 뒤에 똑똑하게 a, b, c, d를 쓰고, 그 밑에다가 언문으로 ‘에이’, ‘비’, ‘시’ 하고 발음을 달아 두 손으로 선형에게 주고 다시 순애의 공책을 당기어 그대로 하였다.

“그러면 오늘은 글자만 외기로 하고 내일부터 글을 배우시지요. 자 한번 읽읍시다. 에이.”

그래도 두 학생은 가만히 있다.

“저 읽는 대로 따라 읽읍시오. 자, 에이, 크게 읽으셔요. 에이.”

형식은 기가 막혀 우두커니 앉았다. 선형은 웃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꼭 물고, 순애도 웃음을 참으면서 선형의 낮을 쳐다본다. 형식은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여 당장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난다. 이때에 장로가 나오면서,

“읽으려무나, 못생긴 것. 선생님 시키시는 대로 읽지 않고!”

그제야 웃음을 그치고 책을 본다. 형식은 하릴없이 또 한번,

“에이.”

“에이.”

“비.”

“비.”

“시.”

“시.”

이 모양으로 ‘와이’, ‘체트’까지 삼사 차를 같이 읽은 후에 내일까지 음과 글씨를 다 외우기로 하고 서로 경례하고 학과를 폐하였다.

이렇듯 소설의 첫 장면에서 ABC를 배우던 ‘선형’이 소설의 결말에서 “시카고 대학 사학년”의 “훌륭한 레이디”로 바뀌는 것, 즉 영어 알파벳을 익히던 사람이 미국 일류 대학의 학생이 되어 ‘영어로 수작’하는 경지에

이르는 문명개화의 코스. ‘영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혈의 루』에 이어 『무정』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광수는 그 자신 영어에 꽤 능통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 소설의 대화나 지문에 영어를 즐겨 사용했다. (그가 소설 속에서 영어나 일본어를 즐겨 사용한 반면, 한국어의 방언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또 다른 탐구의 대상이 될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른 글 「표준어와 소설」 참조.) 영어를 문명개화의 뚜렷한 가지적 상징으로 받아들인 20세기 한국 지식인들의 사고를 이광수의 소설만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는 달리 없을 것이다.

이광수의 소설에서 영어는 ‘새로운 가치’를 대변하는 가장 분명한 기표였다. 『무정』에서의 다음 장면은 ‘문명’과 관련하여 ‘영어’가 어떤 의미 작용을 하는가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우선도 아무쪼록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려고는 한다. 다만 그는 형식과 같이 열렬하게 세상을 위하여 일생을 버리려는 열성이 없었으니, 형식의 말을 빌건대 우선은 '개인 중심의 지나식 교육을 받은 자'요, 형식 자기는 '사회 중심의 희랍식 교육을 받은 자'라. 바꾸어 말하면, 우선은 한문의 교육을 받은 자요, 형식은 영문이나 독문의 교육을 받은 자라.

형식은 영체를 '낡은 여자'라 하고, 다시 형용사를 붙여서 순결 열렬(純潔熱烈)한 구식여자(舊式女子)라 하였다. 그러나 우선은 이번 영체의 행위는 절대적(絶對的)으로 선(善)하다 한다. 하나는 영문식(英文式)이요, 하나는 한문식(漢文式)이로다.

신우선은 “지나(支那) 소설에 나오는 풍류 남자”이며 “당나라 시절 호협한 청년의 풍”을 지닌 “신사”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며 깨어나야 할 대상이다. 그것이 “한문식”이다. 이에 비해 “영문식”인 형식은 한발 앞선 인물임이 분명하다. 신우선과 이형식을 이렇게 “한문식”과 “영문식”으로 대비하는 어법이 문명의 위계를 국가별로 줄 세우는 19세기 말 미래의 담론 질서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다시 말해, 그 비유는 “당나라 호협 풍”의 “한문식”

풍류 남아 신우선이 “백설 같은 파나마모자를 쓴 카이저 수염”의 “영문 식” 신사로 탈바꿈 하는 문명개화의 길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광수의 또 다른 장편 소설 『재생(再生)』(1924-25)에서의 다음 장면은 언어가 사회적 위계질서 혹은 어떤 가치의 우열을 드러내는 결정적 매개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근대 한국 사회에서 ‘영어’가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하는 점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가 될 만하다.

백은 점잖고 공손한 사람이었다. 어찌면 그렇게 ‘젠틀’(점잖)해 보이고 ‘텔리킷’(우아)해 보일까. 순기는 못나 보이고, 운은 못난 듯하고 음흉해 보이고, 최는 남자다우나 더퍼리다. 김씨는 말라깽이요 추근추근하고 아니꼽게 군다. 그런데 백은 ‘라운드’(둥글고) ‘스무우스’(미끈하다), 진실로 ‘애리스토크래틱’(귀족적)이다. 게다가 ‘밀리어네어’(백만금 부자)요, 이런 좋은 집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한다.

『재생』의 여주인공 ‘순영’이 백만장자인 ‘백윤희’의 초대를 받고 그의 별장에 간 날 거기 모인 남자들을 보고 혼자 속으로 하는 품평이다. 순영은 자신에게 목을 맨 백만장자 백윤희의 구애가 그다지 싫지는 않다. 더구나 그의 호화로운 별장과 재산을 보고 은근히 그에 대한 호감마저 느끼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순영이 백윤희와 다른 남자들을 비교하는 언어의 배치가 실로 흥미롭다. 백윤희 이외의 남자들에 대한 순영의 표현은 ‘못나다’ ‘음흉하다’ ‘더퍼리다’ ‘말라깽이’ ‘추근추근하다’ ‘아니꼽다’ 등이다. 그에 비해 백윤희를 가리키는 말들은 ‘젠틀’ ‘텔리킷’ ‘라운드’ ‘스무우스’ ‘애리스토크래틱’ ‘밀리어네어’ 등이다. 한국어 단어들 사이에서 도드라지는 이 영어 단어들이 긍정적 가치들의 지표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영어의 사회적 지위가 확정되었을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영어가 언제나 긍정적 가치만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어가 명예, 부, 권력 등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표가 되었던 만큼 그것은 동시에 지극히 세속적인 경박한 시류의 상징으로도 작용했던 것이다. 『재생』은 영어의 그 다른 측면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훼어에버 유우 아아 교우 아일 교우**(어디나 당신이 가는 곳이면 내가 가지요).”

하고 찬성을 구하는 웃음을 웃는다.

김박사가 하도 유쾌하게 떠드는 바람에 순영이도 마음이 유쾌해지어서 빙그레 웃는다. 김박사도 그 눈치를 알아 차리고 한번 더 다진다.

“**킴은! 노오 헤지데이션!**(자! 주저할 것 없어요!)”

<중략>

“선생님, 저 같은 것을 데리고 가셔서 무엇을 하세요? 거처정거리기만 할 것을.”

순영은 마침내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

“**오우 네버 네버 마인**(어 천만에 천만에), 순영 씨만 같이 가신다면 어디나 가고 무슨 일이나 다 하지요.”

<중략>

“**오오라이, 아이 팔로우 유우**(네 당신을 따르지요). 그러지요.”

이렇게 속으로 영어로 대답할까 하고 생각하노라고 순영은 이윽히 고개를 숙였다.

(강조는 인용자)

‘영어로 수작’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이 장면은 미국 유학을 하고 모 전문학교의 교수로 있는 당대의 명사 ‘김박사’가 순영을 유혹하는 대목이다. 바람둥이이며 파락호인 김박사가 여기서 사용하는 영어가 다소 희화적,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영어=미국이 표상하는 가치를 결정적으로 혼드는 것은 아니었음도 또한 분명하다.

‘영어로 수작하기’는 자주 비난과 조롱, 경계와 혐오의 대상이 되곤 했지만, 비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영어가 지닌 위력의 크기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 점은 8·15 해방기에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귀축(鬼畜)미영(米英)’으로 불리던 ‘미국(=영어)’이 새로운 권력으로 군림하는 혼돈의 현장. 채만식(蔡萬植)의 단편 ‘미스터 방’(1946)만큼 그 현장을 날카롭게 포착해 낸 작품도 흔치 않을 것이다.

‘일자무식의 코빼뜰이 삼복이’는 식민지 시절 일본으로 중국으로 떠돌다가 해방 직전에는 종로 바닥의 신기료 장수로 날을 보낸다. 독립이 무

언지, 해방이 무언지 알 바 없던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일찍이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이다.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들”이 흘러 넘친다. 소설은 “코빼뜰이 삼복이”가 “미스터 방으로 승차”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들고 기물스러워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하우 머취? 하우 머취?” 하고 묻는다.

담뱃대 장수 영감은 30원이라고 소래기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깨웃거리면서 다시금 하우 머취만 찾는 것을, 기회 좋을시라고, 삼복이가 나직이

“더티원.”

하여 주었다.

책 돌려다보더니,

“오, 켄 유 시피크?”

하면서, 사뭇 그려안을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하였다.

종로 바닥의 신기료 장수에서 점령군 장교의 통역으로 변신한 ‘미스터 방’에게 주어지는 온갖 혜택과 권력, 그리고 그의 몰락을 그리는 이 소설에서 서사의 기본적인 모티프는 말할 것도 없이 ‘영어’인데, 그 영어는 지극히 부정적으로 회화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영어의 위력과 그것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한 반감. 「미스터 방」을 비롯하여 해방 이후의 한국 소설은 이제 그것을 그려냄으로써 새로운 계보를 만들기 시작했다. 요컨대, “문명한 세상에 나서 나라에 유익하고 사회에 명예 있는 큰 사업을 하자”면 “우선 영어로 수작하자”던 문명의 비전(vision)으로부터 “엠펜(MP)한테 말 한마디문, 죽을 높이 살아나구 살 높이 죽”는 야만의 비전으로의 이동. 한국 소설과 영어의 관계는 아마도 그 이동의 경로를 추적하는 데에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